

아라비아반도
NEWSLETTER

기도 포커스, 아라비아반도의 위정자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펴전 2:1-4)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딤펴전2:3). 예멘을 제외한 아라비아반도 국가는 대통령, 아미르, 술탄 등 지도자의 명칭은 다르지만 절대 왕정 국가이다. 이들의 권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며,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한다. 아라비아반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젊은 지도자들이 실권을 잡는 지도력의 변화가 있었다. 지도자들 대부분 서구에서 공부했고, 개혁과 경제 발전을 국정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Mr. Everything 빈 살만 왕세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Al Saud)은 1985년생으로 2022년에 총리직을 맡으며 사우디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제군주제 국가로, 국왕은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 정부 수반을 모두 겸직한다. 다른 아랍 전제군주국들이 명목상으로나마 의회를 갖춘데 비해 사우디에는 그런 것도 없이 국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다.

2017년 11월 4일에 빈 살만 왕세자는 500여 명에 달하는 정·재계 고위 인사들을 체포해 리야드의 한 호텔에 감금해 버렸다. 고문과 위협으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고, 감옥에 가두고 자택 감금함으로 압둘라 전 국왕의 세력을 몰락시켰다. 빈 살만 왕세자는 현재까지도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며 사우디의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모으는 데 성공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세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Mr. Everything’으로 불린다. 독재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보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진하는 개혁 개방 정책으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월드컵 대부분 경기를 직관한 타미 알 사니 국왕

얼마 전 월드컵을 개최한 카타르의 타미 빈 하마드 알사니(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은 2013년 당시 33세의 나이로 걸프 지역 왕정 국가에서 최연소 국왕이 됐다.

2017년 6월 카타르가 이란 및 무슬림 형제단을 옹호하고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등 인근 국가들이 카타르와 국교 단절을 선언했다. 갑작스러운 단교로 불안감이 퍼지고, 식료품 등 생필품류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단교 타개를 위한 즉각적인 노력을 추진하면서 사재기 현상 및 물품 공급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었다. 3년 반 이상 이어진 단교사태로 일시적인 외교 및 경제적 고립을 경험했으나 정부와 민간 주도의 신규 수입 노선 발굴과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해 대부분 문제는 해소됐다. 결과적으로는 수입선의 다변화, 현지 먹거리 공급망 확충, 제조 기반 확대로 이어져 산업 다각화 성취를 이루었고, 현 국왕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졌다. 현재 카타르 국민의 국왕에 대한 신임도는 꽤 높아 보인다.

하나의 아랍에미리트를 만들어가는 무함마드 대통령

2014년, UAE 연방 대통령이자, 아부다비의 국왕인 칼리파 빈 자이드 나하얀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왕세제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Mohammed bin Zayed bin Sultan Al Nahyan)이 UAE 연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2022년 칼리파 대통령이 서거한 바로 다음 날 무함마드가 대통령이 되었다. 무함마드는 우리가 부자의 대명사처럼 말하는 만수르의 친형이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후국이 연방을 이루어 만들어졌기에, 대다수의 권한은 각 토후국의 왕(세이크)에게 있다. 그러나 아부다비의 막대한 재정이 토후국들에 제공되고, 점점 더 UAE라는 국가적 정체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다른 토후국들의 균형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결국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국가 체제가 더욱 공고히 세워질 전망이다.

안정적 권력 승계의 잣대는 경제 회복

오만 역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다. 오만을 50년간 통치한 술탄 카부스가 2020년 1월 별세한 후 그의 후계자로 술탄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Haitham bin Tariq Al Sa'id 1954년)가 즉위했다. 술하에 자녀가 없어서 후계 구도가 불분명했던 술탄 카부스와는 달리, 술탄 하이삼은 그의 아들 테야잔 알 사우드 왕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것이라 선언했다. 오만은 국가 지도자인 술탄이 총리와 재무장관, 국방 장관, 외무 장관을 겸임한다.

석유가 충분치 못한 오만에서는 코로나와 세계 경제의 위기, 높은 실업률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불만도 거세지는 듯하다. 국민의 사랑을 받던 국부 술탄 카부스 이후 안정적인 권력 승계의 성공 여부는 경제적 성공에 달려있을 것이다.

쿠웨이트처럼 현 국왕 다음의 후계 구도가 불분명한 곳도 있다. 또한, 현재 안정적으로 왕권이 계승되었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통제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모두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일반인 사찰과 언론 검열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비밀 사복 경찰이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왕정에 반하는 어떤 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불가능하다.

- 위의 언급한 지도자들을 위해 간구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가 되도록 기도하자.
- 지도자들이 내세우는 진정한 관용과 개방이 아라비아반도 국가들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 위정자들 가까이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펼치는 외국인 참모들이 있다. 이들 중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도록, 또한 이들이 합당한 정책들을 펼치도록 기도하자.
- 아라비아반도 국가들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개종이 법적으로 허용되도록 기도하자.

[참고자료] 나무위키 자료

<https://namu.wiki>

KOTRA 자료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nalysis/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87356